



[해설]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03

코스피 2203.27 (+26.09)	코스닥 749.30 (+9.73)
금리 (연평균) 1.72 (+0.01)	환율 (원/달러) 1134.30 (-2.10)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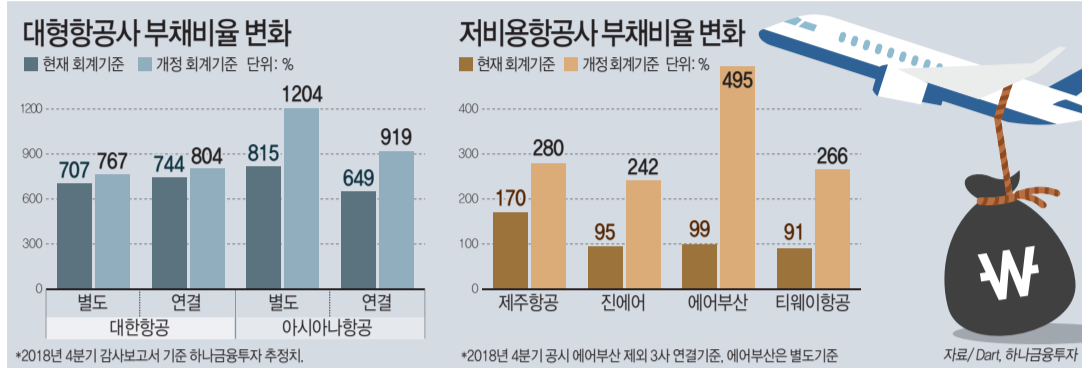
회계의 습격... 리스·영구채 기준변경 '부채쇼크'

#.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사활을 걸었다. 그룹 사육과 CJ대한통운 주식 매각, 아시아나HDT와 에어부산 상장을 통해 연결 기준으로 부채를 649%까지 낮췄다. 그룹 전체 부채는 364.3%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줄어졌다. 하지만 회계의 습격에 아시아나항공은 무너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용리스 비용이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진행형이란 평가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항공기 82대 중 50대를 운용리스로 도입했다. 당장 항공기 리스 차입금 등을 고려하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32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을 봐도 앞날이 우울하다. 보통, 200%를 넘으면 위기로 여겨지는데 아시아나항공은 649%에 달한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1634억원을 썼다. 새 회계기준(IFRS16)에 따라 운용리스가 부채로 반영되면 부채비율은 1000% 가까이 될 전망이다.

회계노믹스 시대 <上> 리스회계

회계의 습격에 대기업과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등 재계의 회계사태를 계기로 리스 회계기준의 변경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운용리스나 영업자산의 임대차 계약비용이 높은 항공, 해운, 유통, 면세점·호텔업계의 부채비율, 차

울부터 새회계기준 적용에 운용리스 비용도 부채 반영 아시아나 부채비율 919% 현대상선 763%... 26배 ↑ 롯데쇼핑 등 유통가도 긴장



금융권에선 부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2022년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앞두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리스회계, 항공·컨테이너선사 부채비율↑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리스회계기준' 변경으로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744%에서 804%까지 높아진다. 아시아나 항공은 649%에서

919%까지 상승한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170%에서 280%, 진에어는 95%에서 242%, 에어부산은 99%에서 495%, 티웨이항공은 91%에서 266%까지 는다. 지난해 에어부산이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로 'K-IFRS 16 리스 기준서 개정'의 영향이 있었다. 해운업종은 컨테이너선사(현대상선)의 부담이 크다. 중장기용선(Time Charter)이나 나용선(Bare Boat Charter) 방식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8년 4분기 감사보고서 연결 기준 현대상선 부채비율은 29%에서 76%까지 늘어난다. 벌크 주력 선사(팬오션, 대한해운, 풀라리스스위핑,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장기 운송계약을 위한 선박 대부분이 금융리스나 자채 확보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55%인 팬오션은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60%로 늘어나는데 그친다. 대한해운은

269%에서 282%로, SK해운은 2606%에서 2732%로 늘어난다. 유통업계도 업종별 부담은 갈릴 전망이다. 백화점·할인점의 경우 최근 세일엔리스백 점포비중이 높아진 롯데쇼핑, 홈플러스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롯데쇼핑의 부채비율은 11%에서 181%로 증가한다. 홈플러스는 70%에서 114%까지 증가한다. 편의점·SSM 업체 가운데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장 대부분을 직영하고 있어서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부채비율은 249%에서 437%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양판점 중에서는 하이프라자의 영향이 크다. 부채비율이 251%에서 40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김문호 정치경제부장 kmh@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중수 전 한은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전 한은총재, 문 대통령,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연합뉴스

경제계 원로 "탄력근로·최저임금 보완해야"

文 대통령, 경제계 원로 초청... 경제현안 자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언급했다. 전 전 감사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도 "(현 정부)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

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여량을 집결해야 한다.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외이사 발언은 IMF가 지난달 12일 'IMF 연례협의 IMF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 때 언급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IMF는 당시 우리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2.7%를,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를 경제성과 목표로 뒀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9일은 현 정부가 만 2년이 된다. 그간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원로들이 준) 조언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들은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후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연관 깊은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국내외 경제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관련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2.5%다. 예산처의 이번 수치는 작년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진단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7%보다 0.2%p 낮은 수치다. /우승준 기자 dnt114@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마감 임박 일부단지 단체행동 등 주택소유주 항의 빗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마감에 앞두고 집주인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안이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해 '고무줄 잣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항의 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선 단체 행동까지 나서고 있어 향후 공시가격이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단지 소유주들은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반대하며 의견서 제출에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달 4일까지 아파트 소유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수집된 내용 등을 참고해 오는 30일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의 상승률은 14.17%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과천의 상승률이 23.41%로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으로 반발하고

공시가격 25%이상 세금폭탄 인터넷으로 미의심... 공시가격 25%이상 세금폭탄 인터넷으로 미의심... 4월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4월30일 확정됩니다

2019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미의심... 2019.03.18에 공시지가가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미의심... 추진 중... 주택가격 관련해서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받는 집수율 공시가격에 대해, 미의심을 앞 코로 넘어 넘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관련 게시글들.

나선 가운데 상승률도 지역별·평형별로 들쭉날쭉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신반포8차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10%포인트가 넘는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경우 현실화율이 75.6%에 달하지만 신반포8차 전용 52㎡의 경우 63%에 불과하다. 두 단지의 현실화율 격차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싼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아파트의 전용 53㎡ 공시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같은 층이 웃인 59㎡보다 3200만원 높았다. (3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